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1년 8월 34권 3호

pISSN 1229-8328 eISSN 2713-850X
J Korean Med Classics 2021:34(3) 021-039
https://doi.org/10.14369/jkmc.2021.34.3.021

JKMC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劉河間의 養腎水 治法에 대한 考察
- 朱丹溪 補腎 治法과의 比較를 통하여 -

[1]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敎授 · [2]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敎授
[3]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講師 · [4]韓醫學古典硏究所 博士後硏究員

白裕相[1]·金度勳[2]·安鎭熹[3,4*]

A Study on the Kidney Fluid Nourishing Treatment of Liu Hejian
- Through Comparison with Kidney Tonifying Treatment of Zhu Danxi -

Baik Yousang[1]·Kim Do-Hoon[2]·Ahn Jinhee[3,4*]

[1]Professo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3]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4]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Liu Hejian's kidney fluid nourishing treatment methodology with Zhu Danxi's kidney tonifying treatment methodology.

Methods : The two doctors' medical theories and treatment formulas were examined to study how their medical arguments manifested in clinical application.

Results : Both doctors emphasized the kidney. Liu pursued the treatment of balance based on the theory of the original qi of the Taiyitianzhen(太乙天眞), while Zhu tried to prevent the frenetic stirring of the ministerial fire by restraining one's desires. In nourishing kidney fluid, Liu sometimes used hot medicinals to treat kidney deficiency patters, where medicinals that tonify the kidney fluid were not defined clearly. Zhu, on the other hand, defined formulas and medicinals that would tonify the kidney yin clearly.

Conclusions : The tradition of emphasizing the body's yin qi based on the kidney has been continued from Liu Hejian to Zhu Danxi, during which the pathology of fire and heat were examined thoroughly. In clinical application, various and specific ways of controlling the fire heat were developed.

Key words : Liu Hejian(劉河間), Zhu Danxi(朱丹溪), Nourishing the Kidney fluid(養腎水), Tonifying the Kidney(補腎), Warming and Tonifying(溫補)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Email : jini@khu.ac.kr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May 10, 2021), Revised(May 18, 2021), Accepted(May 21, 2021)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Ⅰ. 序論

金元四大家의 첫 번째 인물인 劉完素는 字가 修眞이며 河間 사람으로 보통 劉河間으로 불린다. 『黃帝內經』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運氣學說에 심취하여 「至眞要大論」의 十九病機를 해석한 『素問玄機原病式』을 저술하여 火熱의 病機를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의 논설을 통하여 腎水를 길러서 자연스럽게 熾盛한 心火가 물러가게 하는 치법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金元四大家의 또 다른 인물인 朱丹溪의 滋陰 또는 補腎의 학설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金元四大家들이 서로 어떻게 학술적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의 하나로서, 劉河間으로부터 朱丹溪에까지 인체의 陰氣 그리고 腎을 補하는 치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金元四大家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학술적 내용을 계승하거나 한편으로는 서로 비판 의식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술을 개발하는 데에 힘썼다. 그러한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해 보면서 각기 고유한 학설들의 장단점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金元四大家 의학 사상의 형성에 대한 과정을 밝혀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劉河間과 朱丹溪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金元四大家 전반에 대한 연구[1] 가운데, 이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특히 두 醫家의 논설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이론과 임상 방면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2]. 국내의 송철호와 정면 등의 金元四大家 연구[3][4]에서는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으며, 장희욱의 劉完素 연구[5], 이영원, 김기욱 등의 朱丹溪 연구[6][7]에서도 의서에 담긴 논설과 치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劉河間과 朱丹溪의 논설과 처방 설명의 내용 가운데 下焦 腎의 陰氣를 補하는 것과 관련된 주장들을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腎水를 기르거나 腎陰을 補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 처방과 약제들을 검토하여 두 醫家의 주장이 실제 임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두 醫家의 주장 이면에 있는 인체관, 세계관, 시대배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주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즉, 劉河間이 '養腎水, 退陰火'의 치법을 주장한 배경에는, 그가 추구하였던 平治의 道와 太乙天眞의 元氣說을 바탕으로 精氣神을 기르려고 했던 그의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朱丹溪가 주장하였던 滋陰과 補腎의 치법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두 의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金元四大家들의 의학 사상과 실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本論

1. 劉河間의 養腎水 치법

1) 養腎水 치법의 내용

(1) 당시 통용된 溫補法에 대한 비판

劉河間은 많은 병들이 발생하는 기전에서 火熱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당시 의사들이 腎陽을 補하기 위하여 따뜻하고 뜨거운 약을 남용하는 세태가 있었으며, 劉河間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火를 직접 瀉하는 약을 쓰기보다는 腎水를 길러서 心火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1) 餘翔, 鄭曉輝, 李保儒, 黃劍鋒. 金元四大家理論創新探析. 亞太傳統醫藥. 2016. 12(10). pp.17-19.
朱星瑜, 許雷來, 王耀東, 范永升. 金元四大家從氣機論治上火思路淺析. 浙江中西醫結合雜誌. 2016. 26(7). pp.678-680.
趙潔, 戴慎. 金元四大家補益觀. 吉林中醫藥. 2015. 35(12). pp.1198-1200.
章碧明. 金元四大家的學術淵源及其影響. 現代中醫藥. 2009. 29(04). pp.64-66.

2) 湖南省中醫藥研究所.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2-15. : 金元四大醫家들 사이의 비교 및 상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3) 송철호. 金元四大家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4) 정면, 홍원식. 金元四大家醫學이 朝鮮朝醫學形成에 미친 影響.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5. 9.

5) 장희욱. 劉完素의 醫學思想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6) 이영원, 윤창열. 朱丹溪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1. 5.

7) 김기욱, 박현국. 朱丹溪 醫學思想의 背景에 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4).

"陽熱이 발하면 상부에서 鬱함이 심하니, 그러므로 대부분 눈이 어둡고 아찔해지며 귀가 안 들리거나 울리고 위로 막혀서 전질이 되며 위는 열이 심하고 아래는 열이 미약하게 된다. 속세의 무리들이 다시 말하기를 腎水가 쇠약하여 心火를 제압할 수 없다고 하고 망령되게 虛熱이라고 한다. 오히려 水를 길러서 火를 瀉함이 마땅히 차가운 약으로써 해야 함을 모르고 반대로 뜨거운 약으로 腎水를 길러 心火를 이겨 물러나게 하니, 그렇게 하여 禍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8)

腎水가 心火를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 세속의 의사들은 이를 腎의 虛熱로 오인하고 熱性 약으로 腎水를 길러서 心火를 물러나게 하는 치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당시의 의사들이 腎虛를 虛冷으로 잘못 보고 감히 차가운 약을 쓰지 못하는 대신 陽氣를 돕는 熱藥을 식전에 먼저 사용하였고 식후에는 조금 서늘한 약을 겸하여 쓰는 방식으로 타협하였던 것을 劉河間은 비판하였다.

"혹자는 열이 나서 火가 실하고 水가 허한 것을 반대로 腎이 허하여 차가워진 것이라고 하니, 마음이 올바른 이치를 미혹시켜 證에 맞게 감히 차가운 약을 쓰지 못하고, 식전에 양을 돕는 뜨거운 약을 잘못 써서 하부의 水가 이겨 上焦의 心火를 물러나게 하기를 바라며, 식후에 겸하여 약간 서늘한 약을 복용시켜 火熱을 물러나게 하니, 열 개의 보탬이 하나의 덜어냄에 미치지 못함을 어찌 알겠는가. 병이 본래 熱하고 寒이 없는데 뜨거운 약을 쓰면 병의 열이 더욱 심해지니, 식후에 비록 크게 차가운 약을 복용하더라도 또한 그 심해진 기세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니 하물며 조금 서늘한 약을 쓰겠는가. 어찌 뜨거운 약을 쓰는 병증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단지 寒을 다스리고 熱을 돕는다고 말하고, 어찌 水를 길러서 火를 瀉한다고 말하는가."9)

劉河間은 세속에서 老弱한 것도 虛冷으로 보면서 비록 熱證이 있다 하더라도 石藥을 써서 惡疾을 일으키는 것을 비판하였다. 당시에 多用하였던 石藥으로 인하여 몸 안에 熱이 쌓이는 폐단이 있었던 것이다.

"세속에서 모두 老弱한 것을 虛冷하고 熱이 없다고 하니, 熱證을 보고서도 누가 적은 水가 많은 火를 이길 수 없다고 하겠으며 반대로 腎水가 虛하여 寒이 되었다고 말하니, 이것이 곧 온 세상이 잘못을 받는 이유이다. 단지 병을 치료할 때에 陰陽虛實을 알면 일찍 죽음의 원망이 없을 것이고, 삼가 망령되게 뜨거운 약을 써서 眞氣를 길러서는 안 되니, 그러면 眞氣가 어떻게 생기겠는가. 그러므로 『西山記』에서 말하기를 金石藥을 먹으면 반드시 일찍 죽는 근심이 생긴다고 하였고, 『內經』에서는 石藥이 癲狂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모두 열이 심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혹은 따뜻한 약으로 補하려고 하나 『經』에서 말하기를 溫이 쌓여 熱이 되면 변하여 나쁜 질병들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약물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10)

劉河間은 당시의 의사들이 腎虛證을 陽虛로 인하여 虛冷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腎陽을 補하는 溫熱한 약, 특히 石藥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매우 비판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腎水를 기름으로써 자연스럽게 心火의 熾盛을 물러나게 하는 治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 腎水와 心火의 관계에 대한 관점

劉河間은 우주의 생성과 변화에 있어서 水와 火

8)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5. "陽熱發則鬱甚於上, 故多目昏眩, 耳聾鳴, 上壅癲疾, 上熱甚而下熱微. 俗輩復云, 腎水衰弱不能制心火, 妄云虛熱也. 抑不知養水瀉火則宜以寒, 反以熱藥欲養腎水而令勝退心火, 因而成禍不爲少矣, 可不愼歟." (素問玄機原病式·身熱惡寒)

9)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或謂病熱爲火實水虛, 反言腎虛爲冷, 心迷正理不敢用對證寒藥, 誤以食前服其助陽熱藥, 欲令下部水勝, 退上焦心火, 食後兼服微涼之藥, 而退火熱, 豈知十益不及一損也. 病本熱而無寒, 又得熱藥, 則病熱轉甚, 食後雖服大寒之藥, 亦難解其勢之甚也, 況以微涼乎. 豈不詳熱藥證中, 止言治寒助熱, 安有養水瀉火之言哉." (素問玄機原病式·聾)

10)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1. "俗悉言老弱爲虛冷而無熱也, 縱見熱證, 誰云少水不勝多火, 而反言腎水虛則爲寒, 此乃擧世受誤之由也. 但須臨時識其陰陽虛實, 則無橫夭之冤, 愼不可妄以熱藥養其眞氣, 則眞氣何由生也. 故西山記曰, 餌之金者, 當有速亡之患. 內經言, 石藥發癲狂, 熱甚之所致也. 或欲以溫藥也, 補者, 經言, 積溫成熱, 則變生惡疾, 故藥物不可妄服也." (素問玄機原病式·聾)

의 관계를 중시하였는데,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에 내재된 水火陰陽의 관계 속에서 바로 精과 神이 생한다고 보았다.

"『經』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도를 관찰하고 하늘의 운행을 말아 다스리는 것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대개 하늘은 一이고 땅은 二이니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사귀어 精과 神의 運으로 들어가 行하니, 象으로 본뜨면 水火이고 卦로 그리면 坎離이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六合에 퍼져있고, 사물마다 각각 그것을 얻으니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대개 精과 神이 道에서 生하는 것이다."11)

또한 心과 腎은 각각 神과 精이 거처하는 곳으로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우주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삶을 유지하는 것이며 오직 心腎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精과 神이 길러질 수 있다.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補法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眞氣를 닦는 요점은 水火가 서로 救濟하고 土金이 서로 길러주는 것이니 이것이 생을 온전하게 하는 기술이다. 形氣는 편안함을 귀하게 여기니 편안하면 질서가 생겨 어지럽지 않고 精神은 보존을 귀하게 여기니 보존하면 요점이 생겨서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존하고 기르는 것이 처음부터 形氣精神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 이르름에 미쳐서 가히 神明이 나오는 것에 통할 수 있고, 神明이 나오는 것은 모두 心에 있다. 다만 心이 君主之官이 되는 것만 보지는 말라. 心은 길러주는 바를 얻으면 血脈의 氣가 왕성해져 쇠하지 않고, 생명의 근본이 흔들릴 수가 없으며, 神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된다. 腎은 作强之官으로 길러주는 바를 얻으면 骨髓의 氣가 피어나 마르지 않고, 숨고 닫아 갈무리하는 근본을 기울일 수가 없으며, 精이 있는 곳을 빼앗을 수 없다. 무릇 한 몸 가운데 心이 자리 잡아 바름을 지키고 腎이 내려가 위치하여 비로소 精과 神이 거처하니, 이 움은 너무 수고롭게 할 수 없고, 또한 너무 고갈시켜도 안 된다. 그러므로 精이 크게 수고로우면 고갈되고, 그 계통은 腎에 있으니 오로지 아껴야 하고, 神을 크게 쓰면 수고로워지니, 그 갈무리는 心에 있어서 고요하게 기르니, 오직 精이 집중된 후에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연의 이치를 떨쳐버리고 잘못하여 補하는 기술만을 구하니, 이는 거짓으로써 진실을 이기고, 인위적인 것으로써 자연스러운 것을 돕는 것이니, 그것이 가능하겠는가."12)

한편 劉河間은 補養의 핵심이 心腎의 관계 속에서도 특히 腎에 있다고 보고 腎을 중시하였다. 『黃帝素問宣明論方·補養門』의 補養總論에서 먼저 腎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素問』에서 말하기를, 모든 차갑고 거두어 당기는 병증은 腎에 속한다. 腎은 少陰이고 少陰은 至陰이니 至는 끝을 말한다. 少陰은 겨울에 왕성하고 북쪽에 해당하여 水에 속하므로 寒이 되고 歸藏이 되고 周密한 성질이 되니, 속이 寒하면 거두고 당겨서 오그라드는 것은 寒의 用이다. 그 병이 위아래로 水가 생겨 맑고 차갑게 되는 것은 氣가 탁하지 않으며 寒冷으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여 맑고 차가운 것을 토하거나 설사하는 병이 일어나니, 마치 날씨가 추워지면 水가 저절로 맑아지는 것과 같다."13)

11)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4. "經曰觀天之道, 執天之行, 盡矣. 蓋天一而地二, 北辨而南交, 入精神之運以行矣, 擬之於象則水火也, 畫之於卦則坎離也. 兩者相須, 彌滿六合, 物物得之, 況於人乎. 蓋精神生於道者也."(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道論)

12)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14-115. "故修眞之要者, 水火欲其相濟, 土金欲其相養, 是以全生之術. 形氣貴乎安, 安則有倫而不亂, 精神貴乎保, 保則有要而不耗. 故保而養之, 初不離於形氣精神, 及其至也, 可以通神明之出, 神明之出, 皆在於心. 獨不觀心爲君主之官, 得所養則血脈之氣, 旺而不衰, 生之本無得而搖也, 神之變無得而測也. 腎爲作强之官, 得所養則骨髓之氣榮而不枯, 蟄封藏之本無得而傾也, 精之處無得而奪也. 夫一身之間, 心居而守正, 腎下而立, 始精神之居, 此宮不可太勞, 亦不可太竭. 故精太勞則竭, 其屬在腎, 可以專嗇之也. 神太用則勞, 其藏在心, 靜以養之, 唯精專然後可以內守, 故味者, 不知於此, 欲拂自然之理, 謬爲求補之術, 是以僞勝眞, 以人助天, 其可得乎."(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道論)

13)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3. "素問云, 諸寒收引皆屬於腎, 腎者少陰也. 少陰者至陰也, 至者爲極也, 少陰者冬脈所旺, 取北而屬水爲寒, 爲閉藏, 爲周密, 寒中收引拘縮, 寒之用也. 其病上下所生水澄徹冷淸者, 不濁其氣, 寒冷水穀不消化, 吐利淸冷爲病, 則如天氣寒而水自淸也."(黃帝素問宣明論方·補養門)

劉河間은『黃帝素問宣明論方·熱門』에서 腎水는 원래 虛하고 그로 인하여 心火가 盛해져서 風熱이 나타난다고 하였고,『三消論』에서도 陽이 實하고 陰이 虛하여 腎水가 心火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熱藥을 사용하는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腎水의 眞陰은 본래 虛하고 心火의 미친 陽氣는 쌓여 熱이 심하여 風熱의 壅滯를 일으키니, 머리가 어지럽고 아찔해지며 사지에 마비가 오고 피부가 가려우며 근맥이 당기면서 오그라들고 흉격이 막히고 그득하며 때로는 아프고 답답하다."14)

"腎水는 陰에 속하여 본래 寒하니 허하면 熱이 되고, 心火는 陽에 속하여 본래 熱하니 허하면 寒이 된다. 만약 腎水의 陰이 허하면 心火의 陽이 실해지니, 이를 陽實陰虛라 하고 이로 인하여 상하가 모두 열이 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氣厥論」에서 말하기를 腎氣가 쇠하면 陽氣가 홀로 勝한다고 하였으며,「宣明五氣」에서는 腎은 燥를 싫어하니 燥로 인하여 腎水가 마른다고 논하였으며,「藏氣法時論」에서도 腎은 燥를 괴로워하니 급히 辛味를 먹어서 윤택하게 하라고 하였다. 寒物은 陰에 속하여 水를 길러서 心을 瀉할 수 있고, 熱物은 陽에 속하여 火를 길러서 水를 없앨 수 있다. 지금에 腎水가 心火를 이기지 못하여 위아래로 모두 열이 나니 어찌 熱藥으로 腎水를 기르겠으며, 心火를 이기고자 하나 어찌 그릇되지 않겠는가."15)

劉河間은 腎水와 心火를 上下의 天地 관계로 파악하고 인체에서는 精과 神이 각각 거처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心腎의 관계 중에서도 補養의 핵심은 주로 腎에 있다고 보았으며 腎水의 眞陰이 부족할 경우 陽氣가 쌓여 風熱 등의 병을 일으킨다고 경계하였다.

(3) 平常의 추구

劉河間이 추구한 것은 邪氣의 實함을 瀉하고 正氣의 虛함을 補하여 고르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醫學의 道라고 하였다. 이때 직접 火의 邪氣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水를 길러서 火를 이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五行의 원리는 陰 속에 陽이 있고 陽 속에 陰이 있어서 외로운 陰은 자라지 못하고 혼자인 陽은 이룰 수 없으니, 단지 하나의 物이 五行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번갈아 서로 돕고 기르는 것을 화평이라 하고, 서로 치고 이기는 것을 흥했다가 쇠한다고 하니 변하고 어지러워 항상됨을 잃고 많은 害가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水는 적고 火가 많아서 陽은 실하고 陰은 허하여 병듦에 熱이 생기고, 水는 많고 火가 적어서 陰은 실하고 陽은 허하여 병듦에 寒이 생긴다. 그러므로 세속에서 뜨거운 약을 써서 腎水를 기르고 心火를 이겨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심지어는 욕심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병이 생긴 것들도 세속에서 元氣가 虛損하여 병이 寒하게 된 것이라 여기니, 모두 잘못이다. 그러나 요동하여 어지러워지거나 힘을 많이 써서 손상된 모든 경우에 陽火가 일어나고, 정신이 미치고 氣가 어지러워져서 열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16)

萬物의 陰陽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니, 五行도 역시 하나의 一物 속에 갖추어져 서로 돕고 길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水火陰陽과 心腎營衛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곧 和平이며, 氣의 升降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平治라

14)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9. "夫腎水眞陰本虛, 心火狂陽積熱甚, 以致風熱壅滯, 頭面昏眩, 肢體麻痺, 皮膚瘙痒, 筋脈拘倦, 胸膈痞滿, 時或痛悶."(黃帝素問宣明論方·熱門)

15)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275-276. "夫腎水屬陰而本寒, 虛則爲熱, 心火屬陽而本熱, 虛則爲寒. 若腎水陰虛則心火陽實. 是謂陽實陰虛, 而上下俱熱明矣. 故氣厥論云, 腎氣衰, 陽氣獨勝. 宣明五氣論曰, 腎惡燥, 由燥腎枯水涸. 藏氣法時論曰,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夫寒物屬陰, 能養水而瀉心, 熱物屬陽, 能養火而耗水. 今腎水旣不勝心火, 則上下俱熱, 奈何以熱藥養腎水, 欲令勝心火, 豈不謬哉."(三消論)

16)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101. "夫五行之理, 陰中有陽, 陽中有陰, 孤陰不長, 獨陽不成, 但有一物全備五行, 遁相濟養, 是謂和平, 交互剋伐, 是謂興衰, 變亂失常, 百害由生. 是以水少火多, 爲陽實陰虛而病熱也, 水多火少, 爲陰實陽虛而病寒也. 故俗以熱藥欲養腎水勝退心火者, 豈不誤歟. 至如或因恣慾而卽病, 或因久而成病者, 俗以爲元氣虛損而病寒者, 皆誤也. 然諸所動亂勞傷, 乃爲陽火之化, 神狂氣亂而爲病熱者多矣."(素問玄機原病式·聾)

고 하였다. 그러나 세속에서는 陰陽水火의 和平의 상태를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熱藥으로 腎水를 길러서 心火를 이겨 물러나도록 만든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또한 마음의 욕심이나 만성병으로 병이 온 것을 元氣 虛損으로 인하여 寒病이 온 것으로 잘못 인식한다고 비판하였다.

"聾이라는 병을 세속의 의사들이 모두 사납고 건조하며 맹렬한 약으로 다스리고 종종 腎水가 虛冷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니, 어찌 水火의 陰陽과 心腎의 寒熱과 營衛의 盛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알지 못하는가. 한 번 올라가면 반드시 한 번 내려오니 그러므로 높은 것을 누르고 낮은 것을 올리는 것이 바로 平治의 道이다."17)

"일반적으로 병을 치료함에 반드시 병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니, 병이 위에 있으면 상부를 치료하고 병이 아래에 있으면 하부를 치료하여 속과 겉, 臟과 腑, 經絡이 모두 그러하다. 病氣가 뜨거우면 그 熱을 없애고 차가우면 그 寒을 물러나게 하니, 六氣가 법이 동일하여 實한 것을 瀉하고 虛한 것을 補하여 邪氣를 없애고 正氣를 길러서 고르게 만들어 항상됨을 지키는 것이 의학의 道이다. 어찌 병이 이미 열이 있는데 반대로 뜨거운 약을 쓰고서 다시 水를 길러 心火를 이긴다고 말하는가. 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멀리서 구하며 일이 쉬운데 어려운 데에서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니 깊이 경계할 것이구나."18)

劉河間은 水火의 陰陽, 心腎의 寒熱, 營衛의 盛衰 등을 조절하여 평형에 도달함으로써 항상됨을 유지하는 것이 곧 醫學의 道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에 溫熱한 약으로 補하는 治法을 비판하였다.

(4) 太乙天眞의 元氣

平治의 道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太乙天眞의 元氣와 精氣神을 다스리며 정신적인 內治를 목표로 하였다. 太乙天眞의 元氣는 陰陽, 寒熱 등의 편차를 떠나 있으며, 精으로부터 氣와 神이 생기므로 精이 근본이 된다. 따라서 原氣가 虛하기 때문에 반드시 寒病이 온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太乙天眞의 元氣는 陰도 아니고 陽도 아니며 寒도 아니고 熱도 아니다. 그러므로 精 속에서 氣가 생기고 氣 속에서 神이 생겨서 神이 몸을 부릴 수 있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精은 神과 氣의 근본이고 몸을 채워주는 것이다. 精이 견고하면 많은 邪氣들이 몸을 손상하기 어렵고 精이 쇠하면 여러 질병에 쉽게 걸리니, 어찌 元氣가 虛하여 寒이 된다고 바로 말할 수 있겠는가."19)

『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道論』에서도 편차가 없는 太一 天眞의 元氣가 우주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 몸에서도 태어남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여 그것이 脈動의 움직임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釋名』에서 말하기를 脈은 脈幕이라 하니, 하나의 형체를 그물망의 천막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太一 天眞의 元氣를 인도한다. 元氣는 氣에 있어서 寒도 熱도 暖도 凉도 아니고, 脈에 있어서 弦도 洪도 濇도 沈도 아니며, 氣처럼 浮沈하는 것도 아니고 血처럼 흐르다 멈추는 것도 아니니, 바로 沖和自然의 氣이다. 그러므로 봄에 따뜻하고 여름에 덥고 가을에 서늘하고 겨울에 추운 이유는 元氣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이니, 元氣가 사방 木火金水의 자리를 순회하여 溫凉寒暑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늘 새롭게 시작하여 해와 달이 번갈아 뜨고 四時가 순서대로 갈마들며 脈도 쉬지 않고 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진 후

17)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9. "聾之爲病, 俗醫率以慓悍燥烈之藥制之, 往往謂腎水虛冷故也, 夫豈知水火之陰陽, 心腎之寒熱, 榮衛之盛衰, 猶權衡也. 一上則必一下. 是故高者抑之, 下者擧之, 此平治之道也." (素問玄機原病式·聾)

18)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0. "大凡治病必求所在, 病在上者治其上, 病在下者治其下. 中外藏府經絡皆然. 病氣熱則除其熱, 寒則退其寒, 六氣同法, 瀉實補虛, 除邪養正, 平則守常, 醫之道也. 豈可見病已熱而反用熱藥, 復言養水而勝心火者. 可謂道在邇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深可戒哉. (素問玄機原病式·聾)

19)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1. "夫太乙天眞元氣, 非陰非陽, 非寒非熱也. 是以精中生氣, 氣中生神, 神能御其形也, 由是精爲神氣之本, 形體之充. 固則衆邪難傷, 衰則諸疾易染, 何正言元氣虛而爲寒爾." (素問玄機原病式·聾)

五臟이 생겨남에 몸속에 元氣가 활동하게 된다."20)

劉河間이 平治를 추구한 배경은 陰陽寒熱의 편차가 없는 太乙天眞의 元氣가 몸에서 활동하여 건강을 유지한다고 본 것이며, 이러한 沖和自然의 元氣를 바탕으로 精氣神이 충실해진다고 주장하였다.

(5) 精氣神의 內治와 通泄

劉河間은 『素問玄機原病式·聾』에서 精에서 氣가 생하고 氣 중에서 神이 생하여 몸을 운영한다고 하여 精을 神과 氣의 근본으로 보았다. 또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道論』에서는 氣와 神의 관계를 水火의 性命과 心身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道를 실천하는 사람은 늙음을 물리쳐서 형체를 온전하게 하니 몸이 편안하면 병들지 않는다. 水火는 法象을 쓰고 坎離는 交變을 말하니, 그러므로 수많은 책에서 水를 命으로, 火를 性으로, 土를 사람으로 보아서 사람이 水火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性命을 주관하는 것도 사람에게 있고 性命을 버리는 것도 사람에게 있으며 性命을 기르는 것도 사람에게 있으니, 어찌 곧 壽夭를 닦아 단축시키는가? 모두 원래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에서 말하기를 '精과 神을 안으로 지키면 병이 어찌 오겠는가' 라고 하였고 또한 '마음대로 하는 것에 힘쓰면 삶의 즐거움을 거스른다' 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性命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천지의 氣를 받아서 性命을 化生한다. 이로써 形은 생명의 집이며 氣는 생명의 근원이며 神은 생명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체는 氣로 채워지니 氣가 소모되면 형체가 병들고, 神은 氣에 의존하여 자리를 잡으니 氣가 들어와야 神이 존재할 수 있다. 眞氣를 닦는 자는 陰陽을 법으로 삼아서 術數에 조화를 이루며 만족함을 유지하여 神을 부리고 氣를 모으니, 하나를 안아서 神을 수레로 삼고 氣를 말로 삼아 神과 氣가 서로 합하여 오래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精은 주관하는 것이 있고 氣에는 으뜸이 있으니, 原氣를 호흡하면 자연에 합치된다고 하니 이를 말한 것이다."21)

眞氣를 조절하여 精과 神을 기르는 방법은 內事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食餌를 조절하는 內治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內治를 통하여 神氣가 막힌 것을 通泄하도록 만들면 聾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熱藥을 사용하여 聾이 치료되더라도 熱性 때문이 아니라 鬱滯된 氣를 通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물며 氣味가 화평하여 毒이 없는 약물에 맞추는 것에서는 단지 氣를 조절할 뿐이다. 진실로 도를 닦는 사람은 안의 일을 근본으로 삼고 밖의 일을 말단으로 여기니, 음식을 조절하는 방법이 아니면 도를 이루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仙經』에서 말하기를 약과 음식이 五味와 四氣를 갖추지 않아서 편식하는 것이 오래 되면 腑와 臟이 치우쳐져서 병을 일으킨다. 그러하니 어찌 뜨거운 약을 잘못 복용하여 이득을 구하겠는가. 이른바 聾은 水가 쇠하고 火가 실하여 생기니, 열이 상부에 울체되어 하여금 귀 부위의 땀구멍을 막아서 神氣가 통할 수 없는 것이다."22)

20)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5. "釋名曰脈, 脈幕也, 如幔幕之遮覆幕絡一體之形, 導太一眞元之氣也. 元氣者在氣非寒, 非熱, 非暖, 非涼. 在脈者非弦, 非洪, 非濇, 非沈. 不爲氣而浮沈, 不爲血而流停, 乃沖和自然之氣也. 故春溫夏熱秋涼冬寒, 所以然者, 爲元氣動而不息, 巡於四方木火水金之位, 溫涼寒暑之化, 生生相續, 新新不停, 日月更出, 四序迭遷, 脈不爲息, 故人有身形之後, 五臟旣生, 身中元氣卽生焉."(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道論)

21)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4. "夫道者能卻老而全形, 身安而無疾. 夫水火用法象也, 坎離言交變也, 萬億之書故以水爲命, 以火爲性, 土爲人, 人爲主性命者也. 是以主性命者在乎人, 去性命者亦在乎人, 養性命者亦在乎人, 何則修短壽夭, 皆自人爲. 故經曰精神內守, 病安從來, 又曰務快其心, 逆於生樂, 所以然者, 性命在乎人, 故人受天地之氣, 以化生性命也. 是知形者生之舍也, 氣者生之元也, 神者生之制也. 形以氣充, 氣耗形病, 神依氣位, 氣納神存. 修眞之士, 法於陰陽, 和於術數, 持滿御神專氣, 抱一以神爲車, 以氣爲馬, 神氣相合可以長生. 故曰精有主, 氣有元, 呼吸元氣, 合於自然, 此之謂也."(素問病機氣宜保命集·原道論)

22)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1. "況乎齊于氣味平和無毒之物, 但以調其氣爾. 眞修道者, 內事爲本, 外事爲末, 非服餌而望成于道也. 故仙經又曰, 服餌不備五味四氣, 而偏食之久, 則府藏偏傾而生其病矣. 然則豈可誤服熱藥而求其益. 所謂聾者, 由水衰火實, 熱鬱於上, 而使聽戶玄府壅塞, 神氣不得通泄也."(素問玄機原病式·聾)

"혹자가 묻기를 聾이 이미 열 때문이라면 간혹 乾蝎, 生薑, 附子, 진한 술 등의 맵고 뜨거운 성질의 약물을 써서 낫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한가. 대답하기를 귀 부위의 땀구멍을 열어서 귀속에 울체된 것을 통하게 하였기 때문이다."[23]

劉河間은 精氣神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食餌를 조절하는 內治를 근본으로 보았고 치료에 있어서는 울체된 것을 소통시키는 通泄의 방법을 강조하였다.

2) 養腎水 치법의 임상 응용

『黃帝素問宣明論方』과 『素問玄機原病式』에서 腎을 補하는 것과 관련된 처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雜病에 대한 표제에서 腎虛의 病機를 표방한 처방으로는 骨痺證에 사용하는 附子湯과 瘖俳證에 사용하는 地黃飮子가 있다.

骨痺證 主腎弱

身寒, 大衣不能熱, 腎脂枯涸不行, 髓少, 筋弱凍慄, 故攣急, 附子湯主之. 治腎藏風寒濕, 骨痺, 腰脊疼, 不得俛仰, 兩脚冷, 受熱不遂, 頭昏, 耳聾, 音渾. 附子炮, 獨活, 防風去苗, 川芎, 丹參, 萆薢, 菖蒲, 天麻, 官桂, 當歸各一兩, 黃耆, 細辛去苗, 山茱萸, 白朮, 甘菊花, 牛膝酒浸, 甘草炙, 枳殼麩炒去穰各半兩, 上爲末, 每服三錢, 水一大盞, 生薑五片, 煎至七分, 去滓溫服, 不計時候, 日進三服.(黃帝素問宣明論方·諸證門)[24]

喑痱證 主腎虛

內奪而厥, 舌喑不能言, 二足廢不爲用, 腎脈虛弱, 其氣厥不至, 舌不仁. 經云: 喑痱, 足不履用, 音聲不出者, 地黃飮子主之. 治喑痱, 腎虛弱, 厥逆, 語聲不出, 足軟不用. 熟乾地黃, 芭戟去心, 山茱萸, 石斛, 肉蓯蓉酒浸焙, 附子炮, 五味子, 官桂, 白茯苓, 麥門冬去心, 菖蒲, 遠志去心等分, 上爲末, 每服三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棗一枚, 薄荷同煎, 至八分, 不計時候.(黃帝素問宣明論方·諸證門)[25]

附子湯은 腎의 陽氣가 허하여 나타나는 骨痺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附子를 君藥으로 삼고 있으며, 地黃飮子는 滋陰하는 熟地黃을 君藥으로 쓰면서도 역시 附子를 가미하여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解㑊證에서는 腎元이 유여한 腎實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利腎湯을 사용하였는데, 生地黃을 중심으로 溫熱하지 않는 약재들을 배합하여 처방을 구성하였다.

解㑊證 主腎實

冬脈太過, 緩而澀, 腎實精不運, 解者, 緩, 㑊, 疑寒熱類也, 利腎湯主之. 治解㑊, 春脈動, 氣痛氣乏不欲言, 此爲腎元有餘矣. 澤瀉, 生地黃, 赤茯苓去皮一兩半, 檳榔, 麥門冬去心, 柴胡, 枳穀麩炒去穰, 牛膝去苗酒浸各一兩, 黃芩去朽一兩, 上爲末, 每服三錢, 水一盞半, 煎至七分, 去滓溫服, 不計時候.(黃帝素問宣明論方·諸證門)[26]

표제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方義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腎水를 언급한 처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當歸를 君藥 또는 主藥으로 하여 腎水 또는 腎陰을 보하는 처방으로 當歸龍膽丸과 防風當歸飮子가 있다. 當歸龍膽丸은 陰虛로 風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며 黃芩, 黃柏, 黃連, 梔子 등의 차가운 성질의 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防風當歸飮子는 脾腎의 陰虛를 補하는 처방으로 當歸, 人蔘 등 氣血을 보하는 약재와 大黃, 黃芩 등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함께 사용하였다.

當歸龍膽丸

治腎水陰虛, 風熱蘊積, 時發驚悸, 筋惕搐搦, 神志不寧, 榮衛壅滯, 頭目昏眩, 肌肉瞤瘛, 胸膈痞塞, 咽嗌不利, 腸胃燥澀, 小便溺閟, 筋脈拘奇 (奇, 癇急也, 重也), 肢體痿弱, 喑風癇病, 小兒急慢驚風, 常服寬通血氣

23)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1. "或問曰, 聾旣爲熱, 或服乾蝎生薑附子醇酒之類, 辛熱之物而或愈者, 何也. 答曰, 欲以開發玄府, 而令耳中鬱滯通泄也."(素問玄機原病式·聾)

24)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4.

25)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

26)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

調順陰陽, 病無再作. 當歸焙, 龍膽草, 大梔子, 黃連, 黃柏, 黃芩各一兩, 大黃, 蘆薈, 靑黛各一兩, 木香一分, 麝香半錢, 別研. 上爲末, 煉蜜和丸, 如大豆大, 小兒如麻子大, 生薑湯下, 每服二十丸, 忌發熱諸物, 兼服防風通聖散.(黃帝素問宣明論方·熱門)[27]

防風當歸飮子

治脾腎眞陰損虛, 肝心風熱鬱甚, 陽勝陰衰, 邪氣上逆, 上實下虛, 怯弱不耐...

防風, 當歸, 大黃, 柴胡, 人參, 黃芩, 甘草炙, 芍藥各一兩, 滑石六兩, 上爲末, 每服三錢至五錢, 水一大盞, 生薑三片, 同煎至七分, 去渣溫服.(黃帝素問宣明論方·補養門)[28]

참고로 雙芝丸의 경우는 精氣를 補하여 筋骨을 강하게 만드는 처방인데 地黃을 君藥으로 쓰면서도 腎陽을 補하는 일반적인 약들과 함께 附子, 硫黃 등의 熱藥을 사용하고 있다.

雙芝丸

治補精氣塡骨髓壯筋骨, 助五臟調六腑, 久服駐顔不老. 熟乾地黃焙取末, 石斛去根酒炙, 五味子焙, 黃耆剉, 肉蓯蓉酒浸, 牛膝酒浸, 杜仲蜜水浸炮, 菟絲子酒浸三日炒, 麋鹿角霜半斤, 沈香三錢, 麝香二錢研, 人參, 白茯苓去皮, 覆盆子, 乾山藥, 木瓜, 天麻酒浸, 秦艽各一兩, 薏苡仁二兩炒, 上爲末, 煉蜜爲丸如桐子大, 每服二十丸至三四十丸, 溫酒下, 鹽湯米飮亦可. 凡年五十歲已上, 加入黑附子 (以靑鹽湯蘸泡) 鹿角一大對 (去頂三指), 硫黃半斤渾用, 以上用些油, 釜中以水同煮, 令微沸勿大急甚, 水耗只旋漆溫水, 須用水以備漆也, 煉令角膠汁出盡, 其角如霜以手捻如膩粉, 乃盛之取用勿令穢汚也.(黃帝素問宣明論方·補養門)[29]

그밖에 脾와 腎을 함께 補하는 처방으로는 內固丹과 大補丸이 있는데, 內固丹은 腎陽을 補하는 약들과 함께 附子를 사용하고 있고, 大補丸도 대체적으로 溫熱한 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脾腎의 부족을 陽氣 중심의 病機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內固丹

治諸補養腎氣, 調和脾臟, 壽高者常服筋骨勁健, 渾如壯士. 肉蓯蓉酒浸, 茴香炒, 各一兩, 破故紙, 葫蘆巴炒, 巴戟去心, 黑附子炮, 川楝子, 胡桃仁各四兩, 麵炒, 上爲末, 胡桃仁爲膏, 藥末和勻, 酒麵糊爲丸如桐子大, 每服十丸至三十丸, 溫酒鹽湯下, 食前. 虛者加至五七十丸, 此藥明目補腎烏鬚進美食, 空心.(黃帝素問宣明論方·補養門)[30]

大補丸

治男子脾腎不足, 不問久新者. 陳韭子, 陳蘿蔔子已上炒, 薤仁去皮各半兩, 川山甲七片用酒炙, 麝香少許, 上爲細末, 蜜和丸如櫻桃大, 每服一丸溫酒送下, 食前空心.(黃帝素問宣明論方·補養門)[31]

腎陰을 補하는 대표적인 처방인 地黃丸은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 나오는데 腎에 대한 언급은 없고 五臟이 모두 손상되어 마르고 허약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相火를 다스리는 처방인 大黃牽牛散에서도 腎에 대한 언급은 없고 大黃을 君藥으로 사용하고 있다.

地黃丸

治久新憔悴, 寢汗發熱, 五臟齊損, 瘦弱虛煩, 腸澼下血, 骨蒸, 痿弱無力, 不能運動. 熟地黃一兩, 山茱萸, 乾山藥各四錢, 牡丹皮, 白茯苓, 澤瀉各三錢, 上爲細末, 煉蜜爲丸如桐子大, 每服五十丸空心溫酒送下. 如煩渴皮膚索澤, 食後煎服防風飮子, 空心服地黃丸.(素問病機氣宜保命集·補養門)[32]

大黃牽牛散

治相火之氣游走臟腑, 大便秘結. 大黃一兩, 牽牛頭

27)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1.
28)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63-64.
29)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4.
30)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4.
31)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4.
32)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39-140.

末五錢, 上爲細末, 每服三錢, 有厥冷用酒調三錢, 無厥冷而手足煩熱者, 蜜湯調下, 食後微利爲度, 此謂不時而熱者, 溼熱也.(素問病機氣宜保命集·補養門)[33]

劉河間의 養腎水 치법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病機를 정확하게 腎虛 또는 腎弱으로 명기한 附子湯과 地黃飮子에서는 모두 附子 등의 熱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腎實로 인하여 解佈證에 사용하는 利腎湯의 경우는 溫熱한 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劉河間이 腎의 元氣 有餘를 陽氣의 實로 보는 당시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제어에는 없으나 方義의 설명 가운데 腎을 補하는 내용이 포함된 當歸龍膽丸과 防風當歸飮子에서는 寒性과 溫性의 약을 혼용하고 있다. 腎과 脾를 함께 다스리는 內固丹과 大補丸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며, 筋骨을 강화시켜 腎과 肝에 모두 관여하는 雙芝丸의 경우에도 附子, 硫黃 등의 熱藥을 사용하였다. 한편 補陰의 대표적인 처방인 地黃丸의 경우는 腎水를 補한다는 언급은 없고 五臟의 전반적인 虛損으로 인한 병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劉河間은 溫熱한 약 위주로 사용하는 補法을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상 치료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러한 補法이 일부 혼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朱丹溪의 補腎 치법

1) 補腎 치법의 내용

(1) 腎陰의 중요성

朱丹溪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情欲을 가지고 있어서 陰氣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곧 陽道는 實하고 陰道는 虛하다는 것으로 보았다. 情欲이 陰氣를 손상시키는 과정에는 相火가 관여하고 있으니 相火가 치성하게 되면 精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람의 情欲은 끝이 없으니 이로써 쉽게 줄어드는 陰氣를 만들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陰氣를 공급할 수 있는가. 經에서 말하기를, 양은 天氣로 밖을 주관하고 음은 地氣로 안을 주관하니, 그러므로 陽道는 실하고 陰道는 허하다. 또한 말하기를 至陰이 허하면 天氣가 끊어지고 至陽이 성하면 地氣가 부족해진다. 虛와 盛함의 소재를 보면 나의 주장이 지나친 것이 아니다. 閉藏을 주관하는 것은 腎이고 疎泄을 담당하는 것은 肝인데 두 장에 모두 相火가 있어서 그 끈이 올라가 心에 속한다. 心은 君火로 사물에 감촉되면 쉽게 동하고 心이 動하면 相火도 動하여 精이 저절로 달려 나간다. 相火가 후끈 달아오르면 비록 교접을 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흘러서 새어나가므로, 성현께서 오직 사람을 가르쳐 마음을 거두고 마음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뜻이 깊다. 하물며 腎水가 항상 어미인 肺金을 도와서 그 부족함을 補하고 돕는 것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內經』에서 化源을 돕는 것을 강조하였고 옛사람이 여름에 반드시 홀로 지내며 담담한 음식을 먹었던 것은 아끼고 보호하는 데에 삼갔던 것이니, 金水 두 臟을 보호하고 기르며 火土의 왕성함을 정말로 싫어할 뿐이다."[34]

또한 萬物을 감싸고 있는 天地의 天一眞水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腎이 주관하며, 이로부터 津液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肺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三焦의 모든 臟腑가 이 天一眞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腎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水가 天地를 감싸고 있다고 앞 사람들이 일찍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天地가 사람의 水가 되어 또한 五臟을 감싸고 자윤할 수 있는가. 말하기를 天一이 水를 생하여 腎이 실로 주관하고 膀胱이 津液

33)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9.

34)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7. "人之情欲無涯, 此難成易虧之陰氣, 若之何而可以供給也. 經曰, 陽者, 天氣也, 主外, 陰者, 地氣也, 主內. 故陽道實, 陰道虛. 又曰, 至陰虛, 天氣絶, 至陽盛, 地氣不足. 觀虛與盛之所在, 非吾之過論. 主閉藏者, 腎也. 司疏泄者, 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心, 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 則精自走. 相火翕然, 而雖不交會, 亦暗流而疏泄矣, 所以聖賢只是教人收心, 養心, 其旨深矣... 況腎水常藉肺金爲母, 以補助其不足. 故內經諄諄於資其化源也, 古人於夏必獨宿而淡味, 兢兢業業於愛護也, 保養金水二臟, 正嫌火土之旺爾."(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

의 腑가 되나, 腎水를 선포하여 행하게 하는 것은 위로 肺에서 자윤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아는 사람은 肺를 津液의 臟이라 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三焦까지 臟腑가 모두 天一眞水의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素問』에서 水의 근본이 腎에 있고 말단이 肺에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니, 眞水가 고갈되지 않았으면 어찌 渴이라고 말하겠는가. 사람이 오직 음탕한 욕심과 방자한 情으로 인하여 술과 麵을 절제하지 못하며, 굽고 태우고 진하고 짜고 신 음식들과 기름지고 비리고 누린내 나는 종류를 매우 즐기며, 다시 丹砂·玉石의 약들로 私心을 채우니, 이에 火가 타올라 위로 腑와 臟을 훈증하여 熱과 燥가 熾盛하게 만드니 津液이 마르고 타서 갈증으로 물과 음료를 마셔도 스스로 금할 수가 없다."35)

朱丹溪는 天地의 太乙眞水가 萬物을 감싸며 사람에게서는 腎이 이를 주관한다고 보아서 腎水를 중시하였고, 陰火나 相火의 妄動으로 腎陰이 고갈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2) 氣機升降과 心腎의 상호 작용

朱丹溪는 天地 宇宙가 一元의 氣, 즉 元氣로써 萬物을 낳고 기르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神機之物로서 이 元氣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氣의 부침에 따라서 사람의 氣도 같이 운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天地는 一元의 기로써 만물을 화생하는데 속에 뿌리를 둔 것을 神機라 하고 밖에 뿌리를 둔 것을 氣血이라 하니, 만물이 이 하나의 氣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사람은 다른 만물보다 영민하고 몸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여 셋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氣의 올바름을 얻어서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氣가 오르면 사람의 氣도 오르고 氣가 뜨면 사람의 氣도 뜨고 氣가 내려오면 사람의 氣도 내려오고 氣가 가라앉으면 사람의 氣도 가라앉으니,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하나의 橐籥(풀무)처럼 같이 움직인다."36)

인체의 元氣가 운행하는 것은 곧 心腎 간의 升降運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心腎動靜의 운동 속에서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君火와 肝腎에 갈무리되어 있는 相火가 망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병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恬憺虛無를 통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여 精과 神을 안에서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람이 태어남에 心이 火가 되어 위에 거처하고 腎이 水가 되어 아래에 거처하니, 水는 오르고 火는 내려갈 수 있어서 한 번 오르고 한 번 내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 水의 본체는 고요하고 火의 본체는 움직이는데 움직이기는 쉽고 고요하기는 어려우니, 성인께서 일찍이 이에 대하여 말을 잊지 않으셨고 유학자들도 가르침을 세워서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마음을 거두고 마음을 기르라고 한 것이 모두 이 火가 망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의학을 하는 사람도 가르침을 세워 마음이 恬憺虛無하면 精과 神이 안으로 지켜진다고 하였으니 또한 이 火가 망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대개 相火는 肝腎의 陰分에 갈무리되어 있는데 君火가 망동하지 않으면 相火도 오직 명령을 받고 제 자리를 지킬 뿐이니 어찌 타오르는 사나운 불꽃과 날고 달리는 미친 기세가 있을 수 있겠는가."37)

朱丹溪가 腎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元

35)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0. "水包天地, 前輩嘗有是說矣, 然則天地而爲人水, 亦可以包潤五臟乎. 曰天一生水腎實主之, 膀胱爲津液之府, 所以宣行腎水, 上潤於肺, 故譏者, 肺爲津液之臟, 自上而下三焦臟腑皆囿乎天一眞水之中, 素問以水之本在腎, 末在肺者, 此也, 眞水不竭安有所謂渴哉, 人惟淫慾恣情, 酒麵無節, 酷嗜炙煿糟藏鹹酸酢, 甘肥腥羶之屬, 復以丹砂玉石濟其私, 於是炎火上熏府藏, 生熱燥熾盛, 津液乾焦, 渴飮水漿而不能自禁."(丹溪心法·消渴)

36)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1. "天地以一元之氣, 化生萬物, 根於中者曰神機, 根於外者曰氣血, 萬物同此一氣, 人靈於物, 形與天地參而爲三者, 以其得氣之正而通也. 故氣升亦升, 氣浮亦浮, 氣降亦降, 氣沈亦沈, 人與天地同一橐籥."(格致餘論·夏月伏陰在內論)

37)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p.27-28 "人之有生, 心爲火居上, 腎爲水居下, 水能升, 而火能降, 一升一降, 無有窮已, 故生意存焉. 水之體靜, 火之體動, 動易而靜難, 聖人於此未嘗忘言也, 儒者立敎曰, 正心, 收心, 養心, 皆所以防此火之動於妄也. 醫者立敎, 恬澹虛無, 精神內守, 亦所以遏此火之動於妄也. 蓋相火藏於肝腎陰分, 君火不妄動, 相火惟有稟命守位而已, 焉有燔灼之虐燄, 飛走之狂勢也哉."(格致餘論·房中補益論)

氣가 浮沈하는 것이 곧 心腎의 상호 升降으로 드러나므로 마음의 恬憺虛無를 통하여 氣機의 升降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相火의 妄動을 막으려는 생각이 깔려있다. 결국 水火交濟와 上下心腎의 調和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3) 心火와 相火의 妄動

朱丹溪는 五性이 外物의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情欲에 의하여 相火가 치성하게 되면 眞陰을 졸여서 손상시키고 그 결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相火의 기세가 君火보다 더 강하다고 보았다.

"五性이 대상을 인식하면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알게 된 이후에는 다섯 가지 본성이 대상에 감촉되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으니, 움직인다고 한 것이 곧『內經』의 五火이다. 相火가 쉽게 五性을 일으키고 厥陽의 火가 서로 부채질하면 망동하게 된다. 火가 망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眞陰을 끓이고 졸여서 陰이 허해지면 병이 들고 陰이 끊어지면 죽는다. 君火의 氣는 經에서 暑와 濕으로 말하였고 相火의 氣는 經에서 火로 말하였으니 대개 사납고 맹렬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相火가 君火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相火를 元氣의 賊이라 하였다."38)

相火뿐만 아니라 腎水가 허해지면 心火가 갑자기 盛하여 水가 火를 제압하지 못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中風이 오게 된다. 따라서 風證을 단순히 熱證으로 인식하는 것은 말단을 보는 것이고 腎水의 陰氣가 고갈되는 것이 병의 근본임을 설명하였다.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素問玄機原病式』을 살펴보면 풍병은 열이 심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세속에서는 風의 말단을 말하고 그 근본을 잊고 있다. 중풍으로 인하여 癱瘓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肝木의 風이 매우 실하여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또한 밖으로부터 風에 맞은 것도 아니다. 진실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양생이 마땅함을 잃었기 때문에 腎水가 매우 허해지면 心火가 갑자기 성해져서 水가 火를 제압하지 못하게 된다. 火熱의 氣가 뭉쳐서 끓어오르면 神明이 어둡고 흐려지며 筋骨을 쓰지 못하여 갑자기 넘어져 의식을 잃게 된다."39)

종합해 보면 心火와 相火의 妄動은 곧 腎水의 虛함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眞陰을 손상시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만든다고 하였다.

(4) 溫補法에 대한 비판과 대처

朱丹溪는 나이가 들수록 陰氣가 줄어드는데 타고난 胃氣가 남아서 水穀의 陰氣로 뒷받침을 해주니 겨우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藥性이 猛烈한 烏頭, 附子, 丹劑뿐만 아니라 防風, 半夏, 蒼朮, 香附子 등의 燥한 약제들도 陰氣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하물며 사람 몸의 陰은 이루기 어렵고 쉽게 졸어드는데, 6-70세 이후에는 陰이 陽을 돕기에 부족하여 외로운 陽이 날아오르니, 타고난 胃氣가 남아 이어져서 수곡의 陰氣로 받쳐주므로 고삐를 매어서 안정시킬 수 있을 뿐이다. 열거한 바의 앞에 병증들은 모두 血이 부족한 것이니,『內經』에서 腎은 燥를 싫어한다고 하였으니 烏頭, 附子, 丹劑가 燥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血이 부족한 사람은 防風, 半夏, 蒼朮, 香附子와 같은 약들도 단지 燥한 약제가 되어 또한 많이 쓸 수 없으니, 하물며 烏頭, 附子, 丹劑에 있어서랴."40)

38)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25. "五性感物而萬事出, 有知之後, 五者之性爲物所感, 不能不動, 謂之動者, 卽內經五火也. 相火易起五性, 厥陽之火相扇, 則妄動矣. 火起於妄, 變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絶則死. 君火之氣, 經以暑與濕言之, 相火之氣, 經以火言之, 蓋表其暴悍酷烈有甚於君火者也. 故曰, 相火, 元氣之賊."(格致餘論·相火論)

39)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35. "予應之曰, 按原病式曰, 風病多因熱甚, 俗云, 風者, 言末而忘其本也. 所以中風而有癱瘓諸證者, 非謂肝木之風實甚而卒中之也, 亦非外中於風. 良由將息失宜, 腎水虛甚, 則心火暴盛, 水不制火也, 火熱之氣鬱怫, 神明昏冒, 筋骨不用而卒倒無所知也."(局方發揮)

40)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9. "而況人身之陰, 難成易虧, 六七十後, 陰不足以配陽, 孤陽幾欲飛跃, 因天生胃氣尙爾留連, 又藉水穀之陰, 故羈縻而定耳. 所陳前證皆是血少, 內經曰腎惡燥, 烏附丹劑非燥而何. 夫血少之人, 若防風半夏蒼朮香附, 但是燥劑, 且不敢多, 況烏附丹劑乎."(格致餘論·養老論)

부득이하게 引經의 목적으로 附子 등의 熱藥을 사용할 경우에도 仲景의 법과 같이 작은 비율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地仙丹에서 이미 補腎을 말하였으나 자양하고 보하는 약을 사납고 건조하며 치달리는 약과 서로 반씩 사용하면, 腎은 원래 燥를 싫어하는데 腎을 보할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가령 말해보자면 足少陰經은 附子類의 약물이 아니면 능히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으니, 八味丸은 仲景이 만든 腎經藥으로 8량의 地黃에 1량의 附子를 佐藥으로 썼으니 이것을 보면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으니 나의 지나친 주장이 아니다."41)

또한 腎水를 기르기 위해서는 차가운 약을 君藥으로 삼고 溫補의 약을 佐藥으로 쓰며42), 약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天賦自然의 五味가 갖고 있는 冲和의 氣를 섭취하면 마음을 수렴하고 火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冲和의 味에 편안해지면 마음이 거두어지고 火가 내려오며, 치우치고 두터운 味를 편안하게 여기면 욕심이 제멋대로 하고 火가 勝하게 되니 이에 어떤 의심이 있겠는가. 『內經』에서 또한 말하기를 陰이 생하는 것의 근본이 五味에 있다고 하였으니, 바로 천부의 味가 아니겠는가. 陰의 五宮이 상하는 것이 五味에 있다고 하였으니 인위적인 味가 아니겠는가. 성인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43)

朱丹溪는 『太平惠民和劑局方』의 用藥法을 비판하는 『局方發揮』를 저작하기도 하였는데, 『內經』을 인용하여 腎은 원래 燥를 싫어하기 때문에 陰血을 補하는 데에는 燥熱한 약을 쓸 수 없고, 腎水를 滋養하는 약을 쓰는 동시에 인위적인 偏厚한 味가 아니라 천지자연이 부여해준 음식 五味가 가진 冲和의 氣로 보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2) 補腎 치법의 임상 응용

朱丹溪는 『丹溪治法心要』의 火門에서 陰虛火動의 治法을 설명하면서 陰을 補하면 火가 저절로 내리게 되니 黃柏과 地黃의 종류를 써야 하고 火를 직접 瀉하는 寒凉한 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陰이 虛하여 火가 動하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虛火를 補할 수 있고 實火는 瀉할 수 있으며 가벼운 것은 내릴 수 있고 무거운 것은 그 성질을 따라 올린다. 火가 鬱하면 發할 수 있으니 어느 經인지를 살펴야 한다. 氣가 유여한 것이 곧 火이니 火가 지나치게 重하면 반드시 완화시켜야 하니 生甘草에 瀉法과 緩法을 겸하고 人蔘, 白朮도 또한 가능하다. 發하는 경우가 들이니 風寒이 밖에서 온 것을 發할 수 있고, 鬱한 것도 發할 수 있다. 陰을 補하면 火가 절로 내려가게 하는 것은 炒黃柏이나 地黃의 종류이다. 보통 火가 성하면 함부로 寒凉한 약을 쓸 수 없고 반드시 溫散의 약을 써야 한다."44)

『金匱鉤玄』의 火門에서도 正氣가 虛하여 火가 치성한 경우에는 黃柏, 地黃 등과 같이 補陰의 약을 쓰면 火가 저절로 내린다고 하였다. 역시 寒凉한 약을 함부로 쓰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45)

41)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34. "地仙丹旣曰補腎, 而滋補之藥, 與僭燥走竄之藥, 相半用之, 腎惡燥而謂可以補腎乎? 借曰足少陰經非附子輩不能自達, 八味丸, 仲景腎經藥也, 八兩地黃以一兩附子佐之, 觀此則是非可得而定矣. 非吾之過論也."(局方發揮)

42)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35. "駱隆吉亦曰, 風火旣熾, 當滋腎水, 東垣先生取黃柏爲君, 黃耆等補藥之輔佐, 以治諸痿, 而無一定之方, 有兼痰積者, 有濕多者, 有熱多者, 有濕熱相半者, 有挾氣者, 臨病製方. 其善於治痿者乎."(局方發揮)

43)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26. "安於冲和之味者, 心之收, 火之降也, 以偏厚之味爲安者, 欲之縱, 火之勝也, 何疑之有. 內經又曰, 陰之所生, 本在五味, 非天賦之味乎. 陰之五宮, 傷在五味, 非人爲之味乎. 聖人防民之具, 於是爲備."(格致餘論·茹淡論)

44)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341. "陰虛火動難治. 虛火可補, 實火可瀉, 輕者可降, 重者則從其性而升之. 火鬱可發, 當看何經. 凡氣有餘便是火, 火過甚重者, 必緩之, 以生甘草兼瀉兼緩, 蔘朮亦可. 有可發者二, 風寒外來者可發, 鬱者可發. 有補陰則火自降者, 炒黃柏地黃之類. 凡火盛者, 不可驟用寒凉藥, 必用溫散."(丹溪治法心要·火)

45)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432. "凡氣有餘便是火, 火急甚重者必緩之, 生甘草兼瀉兼緩, 人參白朮亦可, 人壯氣實火盛顚狂者可用正治, 或硝冰水飮之, 人虛火盛狂者, 可用生薑湯與之, 若投以冰水正治立死, 有補陰卽火自降者, 炒黃柏地黃之類, 山梔子仁大能降火, 從小便泄去其性, 能屈曲下行降火, 人所不知,

『丹溪手鏡』의 「熱煩」에서는 腎에서 火熱이 발생하여 병이 낫지 않는 경우에는 滋腎丸이나 六味地黃丸을 쓰라고 하였다. 滋腎丸이 바로 黃柏을 君藥으로 하며 六味地黃丸도 地黃을 君藥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滋腎丸과 六味地黃丸이 陰을 補하여 火를 내리는 대표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腎熱이 물 같아서 熱로 인하여 병이 낫지 않는 경우에는 滋腎丸과 六味地黃丸을 쓴다."46)

滋腎丸은 『丹溪手鏡』의 「熱煩」에서 熱이 下焦 血分에 있어서 소변이 원활하게 나가지 않고 갈증은 없는 경우에 쓴다고 하였고, 六味地黃丸(地黃丸)은 같은 편에서 腎熱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쓴다고 하였다. 滋腎丸 계열의 처방으로는 『丹溪心法』의 「補損」에 나오는 大補丸이 있는데 黃柏 單味를 써서 腎經의 火와 下焦의 濕邪를 없앤다고 하였다.47)

滋腎丸
治熱在下焦血分, 小便不利不渴者, 是也. 黃柏酒炒, 知母酒炒一錢, 桂少許. 血澀致氣不通, 或死血作淋, 加滑石, 茯苓, 澤瀉.(丹溪手鏡·熱煩)48)

地黃丸
治腎熱不能運動. 熟地黃八錢, 茯苓, 澤瀉, 牡蠣皮各三錢, 山茱萸, 山藥各四錢. 蜜丸酒下.(丹溪手鏡·熱煩)49)

六味地黃丸은 『丹溪心法』의 「補損」에서 金匱腎氣丸의 명칭으로 실려 있으며 腎氣가 虛하여 五臟이 손상을 받아 형체가 마르고 힘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脈因證治』의 「消渴」에도 보인다.50) 또한 『脈因證治』의 「消渴」에서는 下焦의 腎消에 사용하였다. 『丹溪手鏡』의 「補損」에는 六味地黃丸의 變方으로 桂와 五味子를 넣어서 腎氣를 補하는 八物腎氣丸이 기재되어 있다.51)

金匱腎氣丸
卽六味地黃丸, 治形體瘦弱無力, 多困腎氣久虛, 久新憔悴, 寢汗, 發熱, 五臟齊損, 瘦弱下血. 乾山藥, 山茱萸肉各四兩, 澤瀉, 牡丹皮, 白茯苓各三兩, 熟地八兩, 上爲末, 蜜丸, 梧子大, 服五六十丸, 空心溫水下.(丹溪心法·補損)52)

火盛于下, 爲腎消. 病則煩燥, 小便濁, 淋如膏油之狀. 論云, 焦煩水易虧者, 是也. 六味地黃丸主之.(脈因證治·消渴)53)

滋腎丸에 포함된 黃柏, 知母와 六味地黃丸의 君藥인 熟地黃을 함께 사용한 처방으로는, 『丹溪心法』의 「補損」에 나오는 大補丸과 補腎丸을 들 수 있다. 大補丸에서는 黃柏, 知母 이외에 熟地黃과 龜板을 사용하여 腎水를 補하고 陰火를 내리며, 補腎丸에서는 菟絲子, 破故紙, 肉蓯蓉 등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凡火盛者, 不可驟用涼藥, 必用溫散."(金匱鉤玄·火)

46)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279. "腎熱如火, 因熱不任起床, 以滋腎丸, 六味地黃丸."(丹溪手鏡·熱煩)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488. "腎熱, 按至骨, 蒸手如火, 困熱不任起床, 宜滋腎丸, 六味地黃丸."(脈因證治·熱)

47)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3. "大補丸. 去腎經火, 燥下焦濕, 治筋骨軟, 氣虛以補氣藥下, 血虛以補血藥下, 並不單用. 川黃柏炒褐色, 右以水丸服."(丹溪心法·補損)

48)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289.

49)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279.

50)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488. "地黃丸. 治舊新憔悴, 寢汗發熱, 腸澼下血, 骨蒸, 痿弱無力, 五臟齊損, 不能運動, 煩渴, 皮膚索澤. 食後更宜當歸飮子. 熟地黃八兩, 山茱萸, 山藥各四兩, 丹皮, 茯苓, 澤瀉各三兩. 上煉蜜和丸, 梧子大. 每服五十寒, 空心下."(脈因證治·熱)

51)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9. "八物腎氣丸. 平補腎氣, 堅齒, 駐顔. 熟地半斤, 山藥, 山茱萸肉各四兩, 桂二兩, 澤瀉三兩, 牡丹皮, 白茯苓各三兩, 五味二兩, 上爲末, 蜜丸服."(丹溪心法·補損)

52)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6.

53)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509.

大補丸

降陰火, 補腎水. 黃柏炒褐色, 知母酒浸炒各四兩, 熟地酒蒸, 龜板酥炙各六兩, 上爲末, 猪脊髓蜜丸, 服七十丸, 空心鹽白湯下.(丹溪心法·補損)[54]

補腎丸

有效不燥. 熟地八兩, 菟絲酒浸八兩, 歸身三兩半, 然蓉酒浸五兩, 黃柏酒炒一兩, 知母酒浸一兩, 故紙酒炒五錢, 山茱肉三兩半, 上爲末, 酒糊丸, 梧子大, 服五十丸.(丹溪心法·補損)[55]

한편 『丹溪心法』의 「發熱」의 총론에서는 陰虛發熱이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四物湯 加味方을 사용하고 있는데, 四物湯에 黃柏, 黃芩, 龜板을 더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처방으로 『丹溪手鏡』의 「熱煩」에 기재된 四物補陰丸이 있다.[56]

陰虛發熱證難治, 戴云, 凡脈數而無力者便是陰虛也. 四物湯加炒黃柏, 黃芩, 龜板, 兼氣虛加人參, 黃耆, 黃芩, 白朮. 四物湯加炒柏是降火補陰之妙劑, 甚者必加龜板, 喫酒人發熱難治, 不飮酒人因酒發熱者亦難治...(丹溪心法·發熱)[57]

滋腎丸과 六味地黃丸에 사용된 黃柏과 地黃, 四物湯 加味方에 사용된 當歸 또는 龜板 등이 함께 사용된 처방으로는 『丹溪心法』의 「補損」에 나오는 濟陰丸[58], 明目益腎丸[59], 補陰丸[60], 滋腎百補丸[61] 등을 들 수 있으며, 大補丸과 함께 심한 痿厥을 치료하는 補腎丸에서도 黃柏, 龜板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62]

腎은 肝, 脾의 陰臟과 함께 虛해지기 쉬운데 肝腎이 모두 虛한 경우에 사용하는 巴戟丸[63], 牛膝丸[64]에서는 菟絲子, 肉蓯蓉, 巴戟天, 杜仲 등의 辛甘하거나 溫한 성질의 약을 다용하였다. 눈 속에 火熱이 생긴 증상을 치료하는 補益腎肝丸[65]에서도 오히려 附子, 肉桂 등의 溫熱한 약재를 사용하고 있다. 脾腎이 함께 虛한 경우에는 延齡丹을 쓰는데[66] 金

54)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5.
55)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7.
56)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279. "四物補陰丸. 治陰虛. 四物湯, 人蔘, 白朮, 黃柏, 龜板, 靑黛, 瓜蔞, 薑汁丸. 治酒肉熱."(丹溪手鏡·熱煩)
57)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1.
58)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5. "濟陰丸. 黃柏二兩七錢鹽酒拌炒, 龜板炙一兩三錢半, 陳皮七錢, 當歸一兩酒浸, 知母一兩酒炒, 虎骨七錢酥炙, 鎖陽一兩, 牛膝一兩三錢半, 山藥, 白芍, 砂仁, 杜仲炒, 黃耆各七錢鹽水拌炒, 熟地七錢, 枸杞五錢, 故紙三錢半炒, 菟絲子酒浸一兩三錢半, 上爲末, 以地黃膏如丸, 每服七十丸."(丹溪心法·補損)
59)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8. "明目益腎丸. 枸杞一兩, 當歸酒浸, 生地酒浸一兩, 五味五錢, 知母七錢酒炒, 黃柏七錢酒炒, 山藥半兩, 茯神一兩, 巴戟去心五錢, 菟絲子一兩酒浸, 人參五錢, 甘菊五錢, 天門冬五錢, 上爲末, 蜜丸, 梧子大, 空心鹽湯下五十丸."(丹溪心法·補損)
60)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4. "補陰丸. 側柏, 黃柏, 烏藥葉各二兩, 龜板酒炙五兩, 苦參三兩, 黃連半兩, 冬加乾薑, 夏加縮砂, 右爲末, 地黃膏丸梧子大."(丹溪心法·補損)
61)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8. "滋腎百補丸. 當歸四兩酒浸, 知母二兩酒浸, 沈香五錢, 黃柏酒炒褐色, 山藥, 菊花, 楮實各二兩, 靑鹽一兩炒, 菟絲四兩酒浸, 杜仲二兩炒, 熟地八兩, 上爲末, 酒糊丸, 或煉蜜丸服."(丹溪心法·補損)
62)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4 "補腎丸. 治痿厥之重者, 湯使與大補丸同, 此冬令之正藥, 春夏去乾薑. 乾薑二錢, 黃柏炒, 龜板一兩半酒炙, 牛膝一兩, 陳皮半兩, 右爲末, 薑汁和丸, 酒糊丸, 每服七十丸, 白湯下."(丹溪心法·補損)
63)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6. "巴戟丸. 治腎肝俱虛, 收姨精氣, 補眞陽, 充肌膚進食, 止汗. 五味, 巴戟去心, 然蓉, 人參, 菟絲, 熟地, 覆盆子, 白朮, 益智炒, 骨碎補去毛, 茴香各一兩, 白龍骨二錢, 牡蠣二錢, 上爲末, 蜜丸梧子大, 服五十丸, 空心鹽湯下."(丹溪心法·補損)
64)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280. "牛膝丸. 治腎肝損, 骨痿筋緩不能收持, 亦治腰痛. 萆薢炒, 蓯蓉酒浸, 菟絲子酒浸, 牛膝酒浸治腎, 杜仲炒, 蒺藜治肝等分, 桂一錢半. 上以酒煮猪腰子丸, 酒下."(丹溪手鏡·熱煩)
65)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6. "補益腎肝丸. 治目中焰火, 視物昏花, 耳聾耳鳴, 困倦乏力, 寢汗, 憎風, 行步不正, 兩足搐, 側臥而多驚, 脚膝無力, 腰下消瘦. 柴胡, 羌活, 生地, 苦參, 防己炒各半兩, 附子炮, 肉桂各一錢, 歸身三錢, 上爲末, 熟水丸如梧子大, 服四十丸, 溫水下."(丹溪心法·補損)
66)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9. "延齡丹. 脾腎不足, 眞氣傷憊, 肢節困倦,

鈴子, 鹿茸, 檀香, 沒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入房이 과도하여 脾腎이 虛해진 경우에는 腎氣丸[67]을 쓰는데 熟地黃 외에 蒼朮을 사용하여 濕을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心神의 불안으로 腎의 精이 泄하는 경우에는 固精丸을 쓰는데[68] 黃柏과 知母 이외에 龍骨, 牡蠣, 遠志 등을 사용하고 있다.

기타 처방명이나 方義 설명에서 腎水를 補하는 내용이 포함된 처방들을 살펴보면, 心火를 내리고 腎水를 補益하는 三才封髓丹[69], 秘眞丸[70] 등이 있는데, 熟地黃 또는 黃柏 이외에 人蔘, 甘草, 半夏 등의 溫性 약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腎經이 虛하여 眞元이 부족한 경우에 쓰는 固眞丸[71]에서도 腎陽을 補하는 鹿角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腎水를 補하는 처방으로 黃連과 菟絲子를 각각 君藥으로 하는 黃連茯苓丸[72]과 小菟絲子丸[73]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朱丹溪가 補腎의 치법을 실제 임상에서 운용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火를 직접 瀉하는 寒凉한 약을 과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黃柏과 地黃의 종류를 주로 사용하여 腎을 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를 대표하는 처방이 滋腎丸과 六味地黃丸이다. 또한 四物湯에 黃柏, 黃芩, 龜板 등을 경우에 따라 적절히 加味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朱丹溪가 腎의 陰氣를 補하기 위하여 사용한 처방은 주로 滋腎丸, 六味地黃丸, 四物湯 등과 그 變方들이며 주로 사용한 약재는 黃柏, 熟地黃, 當歸, 龜板 등이었다. 한편 腎이 肝, 脾 등의 陰臟과 함께 虛해진 경우에는 附子, 肉桂, 人蔘, 鹿茸 등의 溫熱한 약을 함께 운용하기도 하였다.

Ⅲ. 考察

劉河間은 주로 火熱 病機를 주창한 醫家이나 직접적으로 火를 伐하는 치법을 사용하기보다는 腎水를 기름으로써 心火를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치료 원칙은 腎의 陰氣를 補하는 滋陰 학설을 주장한 朱丹溪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74][75][76]. 또한 두 醫家가 이러한

擧動乏力, 怠惰嗜臥, 面無潤澤, 不思飮食, 氣不宣通, 少腹內急, 臍下冷痛, 及奔豚, 小腸氣攻沖臍腹, 其功不可具述, 牛膝酒浸, 然蓉酒浸, 金鈴子去皮及子麩炒, 補骨脂炒, 川萆香已上各七錢半, 鹿茸去毛酥炙, 益智仁, 檀香, 晩蠶蛾炒, 沒藥研, 丁香, 靑鹽, 穿山甲各五錢酥炙, 沈香, 香附炒, 薑黃, 山藥, 木香, 巴戟去心, 甘草炙各一兩, 乳香研, 白朮, 靑皮各三錢, 蒼朮三兩酒浸炒, 用靑鹽炒, 去靑鹽不用, 上爲末, 酒糊丸, 梧子大, 空心服四十丸, 溫酒下, 萆香湯亦可."(丹溪心法·補損)

67)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484. "腎氣丸. 治腎脾不足, 房室虛損, 宜此榮養血以益腎. 腎苦燥, 以辛潤之致津液, 故用川芎. 酸以收之, 故用五味. 蓋神方也. 蒼朮泔浸一斤, 熟地一斤, 五味半斤, 川芎冬一兩夏半兩秋七錢春亦七錢. 上爲末, 用棗肉丸, 米飮下."(脈因證治·勞)

68)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8. "固精丸. 治心神不安, 腎虛自泄精. 知母炒, 牡蠣二錢煅, 龍骨三錢, 黃柏酒炒各一兩, 芡實, 蓮蕊, 茯苓, 遠志去心各三錢, 一方加山茱萸肉三錢, 上爲末, 煮山藥丸, 梧子大, 朱砂爲衣, 服五十丸."(丹溪心法·補損)

69)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6. "三才封髓丹. 降心火, 益腎水. 天門冬, 熟地, 人參各五錢, 黃柏炒三兩, 砂仁一兩半, 甘草七錢半, 一方無, 上爲末, 水糊丸, 梧子大, 服五十丸, 用然蓉半兩切作片子, 酒一盞浸一宿, 次日煎三四沸, 去滓, 空心送丸子."(丹溪心法·補損)

70)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9. "秘眞丸. 治腎水陰本虛, 心火狂陽過甚, 心有所欲速於感動應之於腎, 疾於施泄, 此藥秘固眞元, 降心火, 益腎水. 蓮蕊一兩, 白茯苓, 砂仁半兩, 益智一兩, 黃柏二兩酒炒, 甘草炙二兩, 半夏泡一兩, 猪苓二錢半, 上爲末, 水浸蒸餅丸, 梧子大, 服五十丸, 空心酒下."(丹溪心法·補損)

71)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8. "固眞丸. 治腎經虛損, 眞元不足. 鹿角霜一斤, 白茯苓五兩, 鹿角膠二兩, 上爲末, 將膠水搜丸, 梧子大, 空心米湯, 或酒服一百丸."(丹溪心法·補損)

72)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8. "黃連茯苓丸. 壯水原降火. 黃連五兩, 白茯苓五兩, 故紙炒五錢, 菖蒲五錢, 上爲末, 酒糊丸, 梧子大, 服六十丸."(丹溪心法·補損)

73)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57. "小菟絲子丸. 治腎氣虛損, 目眩耳鳴, 四肢倦怠, 夜夢遺精, 又云, 心腹脹滿, 脚膝痿緩, 小便滑數, 股內濕痒, 水道澁痛, 小便出血, 時有遺瀝, 幷宜服. 石蓮肉二兩, 菟絲子酒浸五兩, 白茯苓一兩, 山藥二兩七錢半打糊, 上爲末, 山藥打糊丸, 如梧子大, 服五十丸, 空心鹽湯下, 脚無力木瓜湯下."(丹溪心法·補損)

74) 장희욱. 劉完素의 醫學思想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112. : 朱丹溪는 劉河間의 학파에 속하는 羅知悌의 문하생이었기 때문에 劉河間의 사상이 丹溪學派의 학문적 기초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75) 鮑建敏, 呂萍, 陳震萍, 牟重臨. 論劉河間火熱論核心思想及其對金元四大家形成的影響. 新中醫. 2020. 52(6). pp.180

치법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溫補法으로 인하여 오히려 火熱을 熾盛하게 하여 부작용을 야기하는 폐단을 없애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劉河間과 朱丹溪는 모두 水火心腎의 관계를 통하여 우주와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劉河間은 水火心腎의 운동변화 속에서 精과 神이 길러짐을 말하였고 朱丹溪는 水火의 관계를 升降의 動靜으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 心의 조절 작용을 말하였다. 또한 두 醫家 모두 心腎의 관계 속에서 腎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劉河間은 補養의 중심에 腎이 있다고 보았고 朱丹溪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腎의 陰氣가 계속 고갈되어 갈 수밖에 없어서 이를 보존하는 것이 養生과 治病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劉河間은 특히 補瀉의 법을 운용하여 인체의 평형을 회복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天地人에 모두 관여하는 一元의 氣 즉, 元氣說과 관련이 있다. 즉,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를 포괄하고 있는 太乙天眞의 元氣는 陰陽도 寒熱도 아닌 平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治病의 목적도 이러한 元氣의 성질과 동일하게 인체 내부의 평형에 도달하는 데에 있다고 본 것이다. 朱丹溪도 天地 一元의 氣에 의하여 萬物이 化生한다고 말하였으나 元氣의 회복을 치료의 목적과 결부하여 바라보지는 않았다. 또한 朱丹溪는 相火 또는 君火의 妄動으로 인하여 많은 병이 일어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腎陰을 補하는 치법을 사용하였는데, 劉河間은 궁극적으로 인체의 精으로부터 氣와 神이 생긴다고 보아서 인체의 精氣神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밖에 淡味를 위주로 五味의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두 醫家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腎을 補하는 치법을 중심으로 劉河間과 朱丹溪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응용에 있어서는 두 의가가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우선 劉河間은 본인의 주장에서 일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腎虛證에 熱藥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補陰의 대표적인 처방인 地黃丸을 사용하는 경우도 朱丹溪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腎을 補하는 當歸龍膽丸, 防風當歸飮子 등에서 寒性의 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腎水를 補하는 약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하여 朱丹溪는 腎陰을 補하는 목적으로 滋腎丸, 六味地黃丸, 四物湯 계열의 方劑 사용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약재로는 黃柏, 熟地黃, 當歸, 龜板 등을 활용하였다. 단, 임상 응용 방면에서 두 醫家가 肝腎 또는 脾腎의 陰虛證에 대하여 陽氣를 補하는 약재를 처방 속에 겸하여 사용한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劉河間은 運氣學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太乙天眞의 元氣說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平治의 道와 精氣神의 보충을 치료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火熱 病機를 주창한 것에 비해서는 실제 腎水를 기르는 처방을 많이 개발하여 운용하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朱丹溪는 儒學을 공부한 학문적 배경을 기반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情欲을 억제함으로써 相火妄動으로 인한 발병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치료에 있어서도 腎陰을 補하는 처방과 약재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많은 처방들을 임상에서 폭넓게 운용하였다.

시대적으로 보면 劉河間으로부터 朱丹溪로 내려오면서 腎을 중심으로 인체 陰氣를 중시한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으나, 인간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부터 인체 내면으로 火熱의 病機를 깊이 탐구하게 된 것과 임상 방면에서 火熱을 제어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폭넓게 개발되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劉河間은 비록 실제 임상에서 腎水를 滋養하는 구체적인 치료법들을 많이 개발하지는 못하였으나, 인체의 근본인 元氣를 중시하면서 水火心腎의 평형을 추구하는 인체관과 병리관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溫補法에 편중된 세태를 비판하면서 腎水를 滋養하여 心火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치법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후 金元四大家의 형

-181. : 劉河間의 火熱論 사상이 朱丹溪의 滋陰 학설 및 痰飮 병기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76) 溫長路. 論劉完素在金元醫學創新中的領軍地位. 河北中醫. 2008. 30(7). pp.762-764. : 劉完素가 金元四大家 중에서 특히 張子和, 朱丹溪 등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임을 언급하였다.

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金元四大家의 마지막인 朱丹溪의 의학사상 속에서 많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Ⅳ. 結論

본 연구에서는 劉河間의 養腎水 치법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유사한 朱丹溪의 補腎 치법과 비교 고찰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火熱의 病機를 주창한 劉河間은 火를 직접 瀉하지 않고 腎水를 길러서 心火를 물러나게 하는 치법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朱丹溪의 滋陰, 補腎의 치법과 유사하다. 이 배경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溫補法의 오용으로 인한 폐단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2. 두 醫家는 모두 水火心腎의 관계 속에서 腎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劉河間은 太乙天眞의 元氣說을 바탕으로 平治의 道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면에 朱丹溪는 인간 내면의 情欲을 억제하여 相火의 妄動을 막으려 하여 두 醫家 사이에 치료 목표의 차이점이 있었다.
3. 養腎水 또는 補腎 치법의 임상 응용을 살펴본 결과, 劉河間은 腎虛證에 熱藥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고 명확하게 腎水를 補하는 약재를 규정하기 어려웠으나, 이에 비하여 朱丹溪는 腎陰을 補하는 滋腎丸, 六味地黃丸, 四物湯 계열의 방제와 黃柏, 熟地黃, 當歸, 龜板 등을 분명히 제시하여 활용하였다.
4. 종합해 보면, 腎을 중심으로 인체의 陰氣를 중시하는 전통이 劉河間으로부터 朱丹溪에까지 이어져 내려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을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 내면으로 火熱의 病機를 깊이 탐구하게 되었고, 임상 방면에서는 우리 몸의 火熱을 제어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폭넓게 개발되었다.
5. 劉河間이 제시한 인체관과 병리관, 그리고 腎水를 滋養하여 心火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치법은 이후 金元四大家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金元四大家 중 朱丹溪의 의학사상에서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References

1. 김기욱, 박현국. 朱丹溪 醫學思想의 背景에 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4).
2.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3. 송철호. 金元四大家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4. 餘翔, 鄭曉輝, 李保儒, 黃劍鋒. 金元四大家理論創新探析. 亞太傳統醫藥. 2016. 12(10).
5. 溫長路. 論劉完素在金元醫學創新中的領軍地位. 河北中醫. 2008. 30(7).
6. 이영원, 윤창열. 朱丹溪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1. 5.
7. 章碧明. 金元四大家的學術淵源及其影響. 現代中醫藥. 2009. 29(04).
8. 장희욱. 劉完素의 醫學思想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9. 田思勝 等 主編. 朱丹溪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10. 정면, 홍원식. 金元四大家醫學이 朝鮮朝醫學形成에 미친 影響.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5. 9.
11. 趙潔, 戴慎. 金元四大家補益觀. 吉林中醫藥. 2015. 35(12). https://doi.org/10.13463/j.cnki.jlzyy.2015.12.004
12. 朱星瑜, 許雷來, 王耀東, 范永升. 金元四大家從氣機論治上火思路淺析. 浙江中西醫結合雜誌. 2016.
13. 鮑建敏, 呂萍, 陳震萍, 牟重臨. 論劉河間火熱論核心思想及其對金元四大家形成的影響. 新中醫. 2020. https://doi.org/10.13457/j.cnki.jncm.2020.06.055

14. 湖南省中醫藥研究所.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
之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